

# 목포시, 올 관광객 800만 시대 연다

### 여수엑스포·F1·목포대교 개통 등 연계 타깃 마케팅

### 역사·문화 자원 묶어 한·중·일 크루즈 상품도 기획

목포시가 올해 관광객 800만 명 유치를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시는 “2012 여수 엑스포, 순천 정원박람회, F1 경기대회 등 각종 행사를 비롯해 무안~광양간 고속도로와 목포대교 개통 등 서남권 관광여건의 변화를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최우선으로 2012 여수엑스포·순천 정원박람회·F1 대회 등 국제적 행사 참여 관광객들이 목포시를 경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상품

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반기에 집중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주력 상품개발 여행사와 관광관련 업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남해안 통합관광홈페이지 운영 ▲UCC·블로그·트위터 등 신규매체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 어플리케이션 개발·활용 ▲서남권 통합 관광안내 책자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무안~광양 고속도로와 목포대교 개통으로 원활해지는 접근성을 활용해 전남 동부권, 부산·경남권 관광

객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각급 학교의 5주일 수업에 따른 주말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해안 다도해와 제주를 이어주는 지리적 이점을 최적으로 활용해 목포시의 근대역사·문화자원과 서남해안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하나의 패스로 관광·체험할 수 있는 남해안 관광패스 개발과 이를 연계한 한·중·일 연계 크루즈 관광상품도 선보일 계획

이다.

정종득 시장은 “이 같은 전략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관광마케팅 행사 참여 등 해외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여수 엑스포 현장 홍보와 내외신 기자 초청행사, 외교사절단, 여행 파워 블로거단 대상 팸 투어 및 관광설명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등 발로 뛰는 현장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신안 증도 습지 찾은 국제보호종 저어새 (천연기념물 제205호)가 최근 '람사르 습지'인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 저류지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저어새는 갯벌에서 부리를 좌우로 저으며 먹이를 찾는 습성을 갖고 있다.

## 해남 이번엔 고품질쌀 주식회사

### 배추·고구마 이어 출범

해남배추 주식회사, 고구마식품 주식회사에 이어 고품질쌀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문)가 18일 출범했다.

고품질쌀씨는 기존 해남을 쌀농회 영농조합법인을 규모화·기업화해 시장

지향적이고 전문화된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 법인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쌀 배배 농업인 33명(경지면적 300ha)이 주주로 참여, 1억2000만

원의 자본금을 출연했다. 지난해 11월 설립 등기를 마무리했다.

쌀 주식회사는 올해 품종 통일, 친환경 인증 단지 설정, 브랜드 개발, 지역 RPC 연계,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작업 기반 마련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은 앞으로 무화과, 버섯, 밤 호박 등 품목에 대해 농업회사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함평군 설 앞두고 구제역·시 예방 방역

함평군은 축산 관련단체와 함께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많은 귀성객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발 가능성이 높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일제방역에 나섰다.

군은 16~27일 12일간 일제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축사, 마을 앞 도로, 가축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소독

하는 한편,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주요 도로 110개소에 생석회 2200포를 살포하고 가축차량 운전자에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휴대용 소독약 349개를 지급했다. 또 가금류 사육농가 100호를 대상으로 소독약과 출입금지 안내판을 제작해 배부했다.

/서부취재본부=황윤희기자 hwang@

### ■ 세 일 글

## “농업 생산기반시설 관리에 최선”

### 김철수 농어촌공무안·신안지사장



“유지관리 과학화를 통해 농업 기반 시설물과 농업용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김철수(56)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장은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고품질 완벽 시공과 농지은행 사업의 확대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에게 “상호소통을 통해 화합하는 지사,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업무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 출신인 김 지사장은 목포공고와 인화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새만금 개발처 새만금총괄팀장, 해남지사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안은준씨와 사이에 2남이 있으며 취미는 등산.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 전주 한옥마을 설맞이 민속놀이

### 21~24일 체험 행사 다채

설 명절 연휴인 오는 21~24일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풍성한 민속행사가 열린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에 들어선 전주 전통문화관 및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 체험관, 최명희 문화관, 전통술 박물관, 완관본 문화관, 부채 문화관, 소리 문화관 등에서 다양한 설맞이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행사에서는 60년 만의 흑룡 해를 맞아 화선지에 흑룡을 그리며 새해 소원을 비는 ‘흑룡 그리기 대회’와 복주머니를 만들어 선물하는 ‘내가 만든 복주머니’가 진행된다.

널뛰기, 제기차기, 비석치기와 같은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오색 한지에 각자의 소원을 써 대보름 때 태우는 ‘새해맞이 소원지 쓰기’도 마련된다.

전통문화관은 재미로 한 해의 운을 점쳐보는 ‘재미로 보는 율점’, 가족 율놀이 대회, 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무료로 가족 영화도 상영한다. 전주 자연생태박물관은 가족이 함께 한지 제기와 따지, 복주머니를 만들어보고 새해 운세를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통술 박물관은 전통 가양주 오감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접 빚은 전통 가양주 소개 및 품평회 함께 설날 아침에 마시는 세시주 ‘도소주’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직접 빚은 막걸리 거르기 체험도 펼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말 개관한 전주 부채문화관, 전주 소리문화관, 전주 완관본문화관 역시 전통놀이 체험 한 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용 부채 만들기, 용 여의주 소원 쓰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 세 일 글

## “소통우선 화합의 순창 만들 것”

### 김경선 순창부군수



“화합으로 군민 모두 잘사는 행정을 펼쳐겠습니다.”

지난 17일 취임한 김경선(58) 순창 부군수는 “모든 군정 추진에 있어 소통을 우선으로 삼겠다”며 “공무원과 군민들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모든 일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 출신인 김 부군수는 원광대 대학원(건축학과)을 졸업했으며 지난 1979년 7급 공채로 출발해 전북도 건설교통국, 자치행정국, 건설물류국, 문화관광체육국, 건설교통국 토지주택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임순 씨와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사랑의 떡국 만들기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18일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설맞이 명절음식 체험행사인 ‘사랑의 떡국 만들기’를 했다. 다문화 여성 20여명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한복을 입고 떡 썰기와 떡국 만들기 등에 온 정성을 쏟았다.

/연합뉴스

## 김제시 전통시장열 SSM 입점 막았다

### ‘롯데슈퍼 영업정지 처분’ 소송서 승소… 지역 상권 지켜

김제시가 전국 최초로 기업형 슈퍼마켓(SSM)과의 소송에서 이겨 전통시장 일대 상권을 지키게 됐다.

김제시는 “지난해 관내 기업형 슈퍼마켓(롯데슈퍼)이 전주 지방법원에 영업정지 효력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청구함에 따라 2차례의 변론에 이어 지난 17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제시는 지난해 2월 1일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 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시는 같은 해 5월에 조례와 식 품위생법에 근거, 전통시장 열 토종 상가를 인수해 상호를 바꾼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슈퍼’에 대해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슈퍼는 ‘조례 제정 전에 영업

등이 이뤄져 실제 영업행위는 조례 제정 후로 볼 수 있다”며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제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전통시장 보호와 자금 역유출 방지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과 맞서 이긴 전국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 정읍제조업체 64% 설 상여금 지급

올 설 연휴 정읍지역 기업들은 4일 휴무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읍상공회의소(회장 김인권)에 따르면 관할지역(정읍·김제·고창·부안) 소재 13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 연휴 공장가동 및 상여금 지급실태’를 조사 발표했다.

설 연휴 휴무기간은 4일 휴무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일 휴무 32%였으며, 기타로 2일 휴무 하는 업체도 나타났다.

설 상여금 지급여부와 관련해서는 설 상여금 지급여부와 관련해서는 설 상여금 지급한다든 업체가 64%, 지급 안 한다는 업체가 14%로 지난해 수준에 비해 지급한다는 기업이 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취재본부=빅기섭기자 parks@

### 뉴스 브리핑

#### 김제시 글로벌 리더양성 청소년 日 홈스테이

김제시는 지난 13~16일 3박4일 일정으로 글로벌 리더양성을 위한 청소년 일본 홈스테이 교류 행사를 가졌다.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22명은 일본 기쿠치시를 방문해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와 일본 기쿠치시는 지난 1985년 4월 1일

자매결연 이후 문화와 스포츠, 학생 홈스테이 교류, 공연단 파견 등 다양한 교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권식 시장은 “이러한 교류사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넓은 안목과 국제적 감각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 익산에 대형 유스호스텔 내달 29일 개관

익산에 대규모 유스호스텔이 문을 열 계획이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익산시는 25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이리온’(익산의 옛 지명인 이리와 ‘온’의 합성어) 개관식을 2월 29일 익산시 마한로 현장에서 개최한다.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유스호스텔은 호텔용 15실과 유스룸 26실을 갖췄다. 3층에 설계된 비즈니스 룸과 호텔식 룸은 무왕, 선화, 서동 등의 캐리커 등로 꾸며져 역사문화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6612㎡(건축면적 3737㎡)의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광한루원·춘향테마파크 설맞이 무료 개방

남원시 시설사업소는 설을 맞아 23일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를 무료개방한다.

춘향전의 무대로 알려진 광한루원에는 보물인 광한루, 춘향의 얼이 담겨 있는 춘향사당, 권유직녀의 애뜻한 사랑이 서려 있는 오작교, 달맞이 장소인 완월정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시설사업소 강구섭 소장은 “광한루원을 찾는 귀성·관광객을 위해 주변을 말끔하게 단장했으며 각종 전시회 등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 고창장학재단 ‘서울 장학숙’ 입사생 모집

고창군 장학재단은 오는 2월 7일까지 ‘서울 장학숙’ 입사생을 모집한다. 서울장학숙은 지하철사당에서 걸어서 2분 거리(관악구 남현동)의 오피스텔(30실)이다. 정원은 60명(2인1실)이다. 지원 자격은 고창에 주민등록

이 있거나 본적을 둔 수도권 대학교(전문화학 포함)의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다. 입사 희망자는 군청 살기좋은 고창만들기과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문의(063-560-2737)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